

2022
민주 US 결과보고서

목차

1. 항공권 사본
2. 예산사용내역
3. 일정계획
4. 탐방기관 방문 사진
5. 탐방 후 느낀 점
6. 탐방을 통한 나의 발전 계획

V-dem 인터뷰_

Q1. how trustworthy and valid do you think the v-dem project, one of the indices that evaluates democracy, is?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v-dem 프로젝트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하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종류의 과학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측정할 때 혹은 물리학에서도 측정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부분의 척도는 측정 오류 또는 척도를 포함한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다른 조치들의 점수를 완벽하고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v-dem에 대한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고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실제 점수가 우리가 뿌린 신뢰 구간 내에 있다고 **70%** 확신한다.

Q2. How much does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contribute to democracy? We wonder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지방자치의 발전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하나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를 측정하는 우리의 척도 중 하나는 권력분점지수라고 불리는 다른 지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선된 지방 및 지역 당국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다.

그들은 공정하게 선출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지수와 선거 민주주의 지수의 상관관계는 약 0.7이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완벽한 상관관계는 아니다. 완벽한 상관관계는 1이고 전혀 관계없음은 0을 뜻한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보다 강한 관계가 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관 관계가 약 **0.7**이다.

V-dem 인터뷰_

Q3. Looking at the 2021 v-dem project index, Korea's participatory democracy index was 0.59 and the U.S was 0.42, indicating that Korea's index was higher. Why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dex between Korea and the U.S?

(2021년 v-dem 프로젝트 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0.59, 미국은 0.42로 한국의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참여민주주의 지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한국과 미국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른 점은 한국이 헌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안을 비준하기 위해 국민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개헌은 유권자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 참여 민주주의 지수의 더 높은 점수로 이어지게 되는 한 가지 이유이다.

또한 2018년 이후 한국이 미국보다 선거 민주주의에서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점수에 기여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과 한국의 참여민주주의 지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V-dem 인터뷰_

Q4. As a result of analyzing through the v-dem project, what has changed democracy in the US since COVID-19? Based on this, please evaluate the democracy in the US.

(v-dem 프로젝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미국 정치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2020년 선거 기간 동안 격리에 필요한 집에 머물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봉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이 집에 있어야 할 때. 많은 주의 몇몇 선거 당국은 사람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편함과 같은 드롭박스과 투표소나 도시의 다른 지역에 말이다.

그러나 공화당 활동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의 이러한 수정에 반대했다. 그래서 일부 공화당원들은 많은 민주적 투표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고 이것은 부정행위를 하고 불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민주주의자들의 노력이라고 믿었고 반면 민주당은 투표가 권리로서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방식으로 규칙을 바꾸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결과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졌고, 조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 규칙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공화당원들은 그것이 합법적인 선거였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치 다른 지역들이 있는 것처럼 매우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현실에 살고 있다. 공화당원의 60%는 조 바이든이 미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깊이 분열되어 있다. 내 말은 전염병이 이런 양극화를 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양극화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팬데믹은 특별한 상황이고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하지만 지도자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에 대해 그다지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척하려고 했고 그는 그것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초기에 그가 한 좋은 일 중 하나는 백신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배포할 효과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보급하기 위해 매우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그 나라의 모든 사안들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두 진영으로 나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결코 코로나 19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프리덤 하우스 인터뷰_

Q1. The U.S is the most influential democracy in the world?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reason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American democracy?

Q1.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미국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발전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1. 선거

역사적으로 미국은 상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한 정당에서 다음 정당으로 넘어갑니다. 퇴임을 거부하던 현직 대통령의 권력 다툼은 보통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이 투표하려고 하는 장벽을 없애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투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제한사항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많은 일을 했고 그러한 제한을 줄였습니다.

- 2. 시민의 자유

미국은 시민의 자유를 지켜온 강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언론 자유 집회에 매우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역사적 시기에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꽤 잘 해왔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디어나 감시에 대한 제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점점 더 걱정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실제로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프리덤 하우스 인터뷰_

Q3.

My team judged that the reason for south korea's low participatory democracy index is the lack of revitalization of local autonomy. Do you actually think that revitalizing local autonomy will affect the level of participatory democracy?

Q3. 우리 팀은 한국의 참여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이유가 지방자치의 활성화 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 활성화가 참여민주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장려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 중 하나다. 민주주의의 장벽이 되는 취약한 인구와 경제 문제에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실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권고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차원에서 지방자치에 많이 참여한다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고, 우리 동네는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변화가 생기면 모든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항의하려 갑니다.

또한 방문하신 인디애나주는 농사가 많아서 농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농업이 바뀌면 모두가 참석해서 의사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 활동이 활발합니다. 지방 정부의 선거는 지역 사회 구성원에 의해 선출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변화하고 싶다면, 후보자는 당연히 지역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주권도 강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리덤 하우스 인터뷰_

Q4. If the revitalization of local autonomy affects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what measures do you think should be prepared to revitalize local autonomy in South Korea?

지방자치 활성화가 참여민주주의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적극적인 지방행정을 펼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서울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지방 정부에 분배하고 통제합니다. 다시 말해, 서울은 이런 하향식 방식으로 가장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에 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을 시골로 불러들이고 부의 일부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지자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민주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민 참여도가 낮을 때 젊은이들에게 정부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반장 선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후보자는 공약에 대한 연설을 하고, 학생들은 연설을 듣고 비밀리에 투표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동료 선생님께 물어봤을 때, 저는 한국 학교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투표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투표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런 만큼 투표 방법, 정부와 대화하는 방법 등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미디어 교육

미디어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국가가 무엇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정부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읽고 올바른 정보를 찾는 방법과 같은 세상을 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디애나 의회 인터뷰_

Q1. so where do you go to school and what are you studying? (politics and diplomacy) There's a lot of politics going on here.

Q3.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오고 어떤 전공을 공부하나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정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들은 컴퓨터로 그것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0명의 상원의원이 있고 그들은 4년의 임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4년 임기를 채우고 여기에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투표하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상원의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그러니 2월이 아니라 올해 2월에 상원의 절반이 재선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모두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4년의 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사진과 지역을 보여줍니다. 50개의 구역이 있고 그것들은 인구에 의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에는 대략 650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각 상원의원은 약 13만 5천 명의 유권자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투표하는지? 그들은 이 태블릿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빨간색 버튼이나 녹색 버튼을 받고 화면에 이름을 표시하고 어떻게 투표했는지와 총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투표하는지 볼 수 있고 그들은 투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잘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해 상충이 있다면 재정적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언가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예외입니다.

인디애나 의회 인터뷰_

Q2. When it open, many people watch? Or just a few?

Q2. 많은 분들이 보시나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 참관하나요?

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미국에서는 50년 전에 대법원이 낙태가 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각 주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원 의원들과 대표들은 인디애나주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위해 돌아와 그들의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건물은 꼭 찻어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여기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했습니다.

인디애나 의회 인터뷰_

Q3. So how about result for Indiana?

Q3. 인디애나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디애나에서는 낙태가 거의 불법이에요. 인디애나에서는 10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친상간일 경우에만 다른 선택은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죽었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보수적인 주 중 하나인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리노이는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결정한 젊은 여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일리노이로 가라고 해. 그래서 그것은 일주일 조금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외부 권리와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팀들을 발견하는 것은 내 말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여기 있으면 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사람들이 와서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단지 완전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여성과 그녀의 의사 사이에 있어야 하고 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 중 일부는 그것이 잉태된 순간부터 마치 아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매우 다릅니다.

인디애나 의회 인터뷰_

Q4. What is this?

Q4.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은 현재 모든 상원의원의 성입니다. 우리는 상원의원 포드가 두 명 있고 상원의원 워커가 두 명 있습니다.

Q5. And then when senator are changed that changed too?

Q5. 상원의원이 바뀌면 이것들도 바뀌나요?

여러분은 다른 색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어떤 것들처럼 다른 것들보다 더 밝게 혹은 어둡게 떠오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님 인터뷰_

Q1. The U.S is the most influential democracy in the world?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reason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American democracy?

Q1.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미국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발전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의견의 문제이다. 특히 미국의 역사는 반드시 성공의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며 미국 입헌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의 상승 궤적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의 결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방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주를 해쳤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일종의 깊은 결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것은 단일 국가의 측면에서 한국의 조건이나 다른 국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단지 단일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연방 시스템과 다르다. 미국 연방 시스템에 일종의 타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방 수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회 선거 결과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 수준에서 민병대가 조직된 대통령의 직접 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별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미국이 사람들에게 대한 가장 공평한 대우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돈의 영향력에 대한 금권 정치 위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님 인터뷰_

Q2.

We wonder if there is a difference in local autonomy in each state in the United States, where each state has a clear independence.

각 주마다 독립성이 뚜렷한 미국의 주마다 지방자치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의 각 주들이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어할 때조차 연방 헌법에 조금이라도 더 일치해야한다. 그들은 확실히 헌법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돈을 인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다른 주들과 무역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연방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주는 매우 전문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주는 미국 의회와 매우 비슷하다. 각 주들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입법부로서 매우 비전문적이다.

Q3. How much does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contribute to democracy? We wonder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지방자치의 발전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하나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오로지 미국 남부일 필요는 없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부정적인 상관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링컨은 지방 자치권을 궁극적으로 양당 경쟁을 무찌르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내전이 일어나기 전인 1860년 선거에서는 미국 남부에서 투표조차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잘 되었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주나 지역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절연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님 인터뷰_

Q4. What do you think South Korea needs to improve in order to revitalize local autonomy like the US?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지역 정치인들을 위한 독특한 선거 기반이 따로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더 높은 수준에서 다른 종교와 시간이 다른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 미국은 많은 계층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각 주 선거에서의 선거가 반드시 연방 선거에서 동시에 치러지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에게 다른 종류의 선거 역학을 만들고 그들에게 그들이 하는 것들을 할 용기를 준다.

Q5. Lastly, may I ask for your advice on improving the overall level of democracy in South Korea?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한국은 패배를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어떤 종류의 놀라운 결과를 야기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정부나 야당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만나서 선거와 공정한 선거의 인증에 대한 불멸의 충성심을 선언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정계획

일자	도시	주요일정
8.8-8.9	한국 > 미국	이동
8.10	시카고	프리덤 하우스 연구원 인터뷰
8.11	시카고	시카고 대학교 방문
8.12	시카고	시카고 다운 타운 관광지 방문
8.13	인디애나	Indiana state capitol 방문
8.14	인디애나	V-dem regional centers 인터뷰
8.15	인디애나	탐방 및 인터뷰 정리

일정계획

일자	도시	주요일정
8.16	워싱턴	이동(국내선 American airlines으로 이동)
8.17	워싱턴	Washington state capitol 방문
8.18	워싱턴	워싱턴 관광지 방문
8.19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투어
8.20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투어
8.21	뉴욕	이동
8.22	뉴욕	콜롬비아대학 정치학 교수님 인터뷰

일정계획

일자	도시	주요일정
8.23	뉴욕	뉴욕 관광지 방문
8.24	뉴욕	인터뷰 정리
8.25	뉴욕	짐 정리 및
8.26	뉴욕	귀국

탐방기관 방문 사진



워싱턴 국회 의사당



Indiana state capit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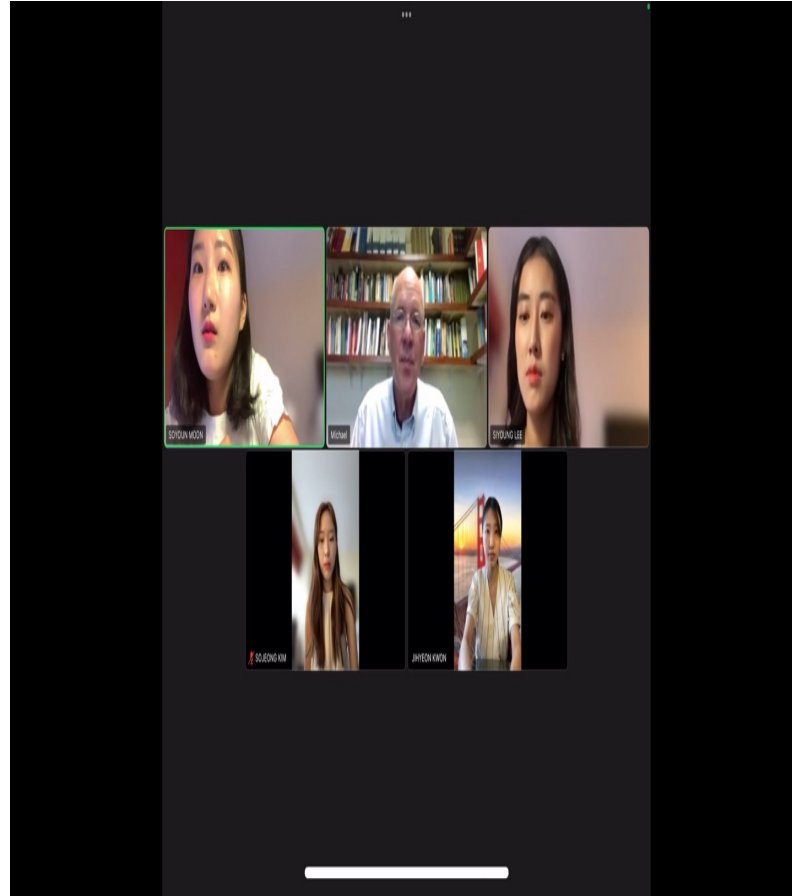


Indiana state capit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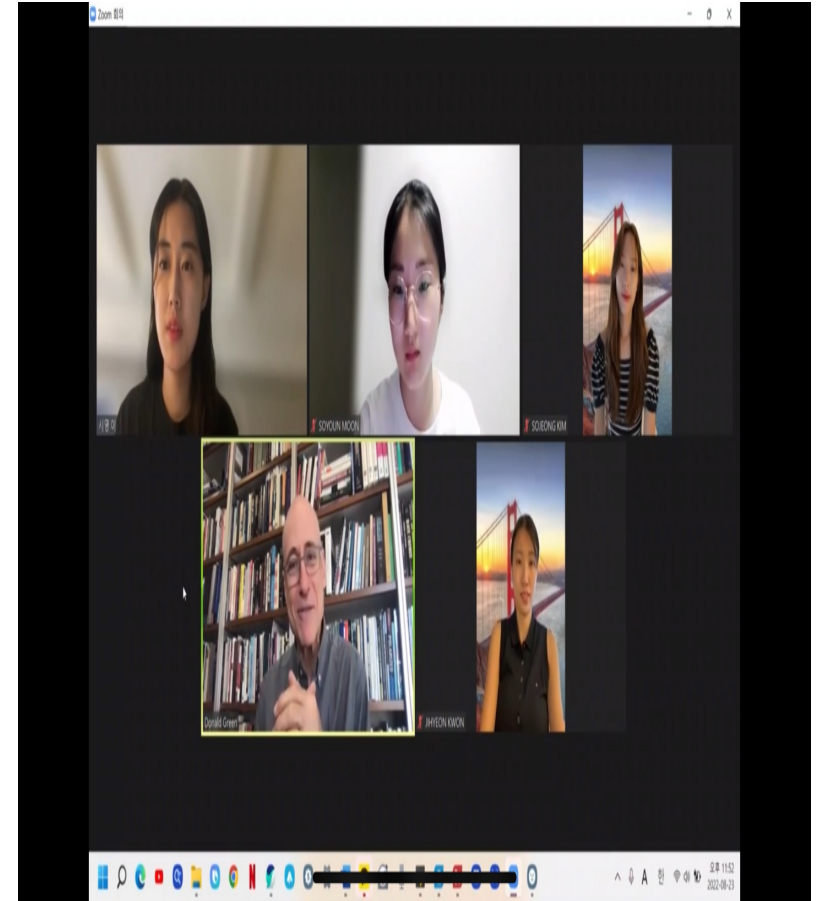
탐방기관 방문 사진



프리덤하우스 인터뷰



V-dem regional centers 인터뷰



콜롬비아대 정치학 교수님 인터뷰

탐방 후 느낀 점 & 발전 계획

[탐방 후 느낀 점]

학술탐방 계획서에 다양한 기관과 교수님과 연구원 분들을 인터뷰 하겠다고 작성했고 컨택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방문하는 날짜와 인터뷰 날짜가 다가오니 우리 팀이 혹여 실수 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부딪혀 봐야한다는 말처럼 저희 팀은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고, 성공적으로 모든 학술탐방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으며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주최하는 좋은 기회를 후배님들도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탐방을 통한 나의 발전 계획]

학술탐방을 통해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입시를 위해 주입식 영어 교육만 했지 직접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학술탐방을 통해서 아무리 영단어를 많이 알아도, 회화가 부족하며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 회화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에 유명한 기업도 많지만 외국계 기업도 많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기업에 대해 더 분석하고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탐방 후 느낀 점 & 발전 계획

[탐방 후 느낀 점]

먼저 탐방 기관이나 교수님들을 컨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시행착오가 꽤 있었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다 이행하고 온 점이 가장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또한 팀원 모두가 미국에 가본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도 많았고, 코로나 19로 인해 그저 쉬운 여행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좋은 추억으로 간직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 대학생활을 통틀어 보았을 때, 해외로 나가 전공이나 학문적 궁금증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은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탐방을 통한 나의 발전 계획]

탐방을 진행하면서 4년 동안 전공을 배우며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 한층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여행에서 생기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실력을 키워야겠다는 긍정적인 동기가 생겼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영어 회화나 리스닝 실력을 키워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을 탐방하며 세상에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탐방에서 느낀 점들을 저의 진로 선택에 반영하여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탐방 후 느낀 점 & 발전 계획

[탐방 후 느낀 점]

미국 학술 탐방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입니다. 3주 동안 여행하며 많은 인종, 문화를 경험하였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기반 시설이 잘되어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은 호텔도, 공항도, 길거리도, 문화시설까지 모두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워싱턴 의회 의사당 투어에서 단 한 명의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사가 무료로 배치된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술탐방의 기회 덕분에 인디애나 의회 탐방, 교수님들과의 인터뷰, 프리덤하우스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우리의 학술 탐방 주제인 미국의 선진 지방 자치 시스템을 직접 보고 듣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동국대학교 학술탐방 프로그램을 동기, 후배들에게도 꼭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탐방을 통한 나의 발전 계획]

미국 학술 탐방을 하며 총 3차례의 인터뷰와 2차례의 의회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고,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영어라는 학문에 대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듣기 평가보다 빠른 현지인의 언어는 쉽사리 알아듣기가 어려웠고, 온 신경을 곤두세워 집중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큰 자극을 받아, 한국에 돌아온 현재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넓은 세상을 보고 오니, 한국에서만 살았던 제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따라서, 외교관의 꿈을 꼭 이루어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영어 실력을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위상을 빛내는 외교관으로 발돋움하고 싶습니다.

탐방 후 느낀 점 & 발전 계획

[탐방 후 느낀 점]

미국 학술 탐방을 통해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약 3주 간 자유 여행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고 느낀 것도 많았던 탐방이었습니다. 탐방 핵심 주제였던 미국의 선진 지방 자치 시스템을 의회 방문을 통해 직접 배울 수 있었고, 교수님 및 관련 기관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의 상황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술탐방 프로그램을 다른 학우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탐방을 통한 나의 발전 계획]

미국 탐방 도중 진행한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미국 정치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영어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의회 견학에서 접한 현지인들의 영어를 들으며, 제 영어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여 글로벌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직접 듣고 배운 현지 정치 지식을 전공 수업과 접목하여 전공 전문성을 키워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